

유기농 생태마을 박차 2026년까지 '100곳'

전남도, 곡성 죽산마을 등 4곳 지정...총 61개 마을

전남도가 '유기농 생태마을 100개' 키우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남도는 유기농업 확산 및 정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곡성 죽산마을, 화순 경현·원진마을, 함평 신기마을 등 4곳으로 유기농 생태마을로 새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유기농 생태마을은 일정 규모 이상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뒤 선도적으로 실행해 농업 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마을로, 전남도가 지난 2009년 전국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전남도는 친환경 인증 면적 10ha 이상으로 이 중 유기농 인증 면적 30% 이상을 인증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61개 마을이 지정된 상태로, 오는 2026년까지 100개 마을을 선정해 육성한다는 게 전남도 방침이다.

신규 지정된 곡성 죽산마을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17.5ha·100% 유기농 인증)을 갖췄고, 우렁이 농법으로 15년 이상 친환경 벼 재배를 실천하고 있는 마을. 풀앗이 전통을 계승한 역사 깊은 마을로 매년 엿과 조청을 만들어 나누고 있다.

화순 경현마을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11.9ha·유기농 인증 10.1ha)에 메뚜기와 미꾸라지, 투구새우가 논마다 서식하고 있다. 반딧불이도 관찰되는 친환경 생태환경이 눈길을 끄는 마을.

원진마을(친환경 인증면적 14.6ha·유기농 인증 13.3ha)은 수달이 자주 발견되고 생태습지 조성으로 다슬기, 토하 등 다양한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마을이다.

함평 신기마을은 친환경 인증(13.9ha·유기농 인증 12.9ha) 면적 중 무화과(6ha)를 친환경으로 시설 재배하는 마을로 30년 이상 친환경농업을 실천해오고 있다. 유기농 무화과로는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들 마을 활성화를 위해 생산·가공·유통·체험 관련 시설장비 지원과 마을 주민 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제공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기농업 정착과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해남 유기농 오디, '6월 친환경농산물' 선정



라기산과 비타민, 다량의 칼슘이 함유돼 기력 회복,

해남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하는 유기농 오디(사진)가 6월 이달의 친환경농산물로 선정됐다.

대표 블랙푸드(black food)인 오디는 뽕나무 열매로, 알라닌, 아스파라긴산과 비타민, 다량의 칼슘이 함유돼 기력 회복,

노화 방지에 좋다. 안토시아닌은 포도보다 23배나 많아 세포 활성화와 간 해독에 효과가 있다.

올해 유기농 오디 생산 예정량은 3t으로, 고정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직거래와 쇼핑몰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기농산물 생산을 비롯, 가공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판로 다각화를 통해 안정된 소득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선비문화 체험하며 청렴 의지 다졌다

도, 유관기관·단체 등 80여명 참여...소쇄원 등 방문

전남도가 선비문화 체험행사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에 공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담양군 일대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선비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선비문화 체험행사는 공직 유관 기관·단체 구성원의 청렴 문화 정착을 통해 지역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는 3년째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총 3회에 걸쳐 이뤄진 올해 체험행사에는 전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지역 유관기관·단체 청렴 업무 담당자와 기관 추천 임직원 등 80여 명

이 참여했다. 행사는 전통문화 속 청렴 문화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 위해 현장을 찾은 체험형 프로그램, 청렴 강의, 소쇄원 방문 등으로 진행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내 유관 기관·단체 구성원의 한 단계 성숙한 청렴 의식이 지역의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를 청렴도 향상 재도약 원년으로 삼아 청렴윤리경영회의, 청렴페스티벌 등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의료 취약지 81곳 비대면 진료 시작

공보의 없는 나주·해남·여수 등 강진·장흥 등 6곳 '원격 협진'

전남도가 의료 취약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진료·원격협진 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보건진소 217개소 중 공중보건(공보의)이 없는 해남·여수·보성·나주 등 81곳을 대상으로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의사와 인과 연결, 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의료 소외지역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강진·장흥·해남·완도·진도·신안 등 의료 취약지 6곳에서는 'ICT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보건진료소 간호사나 방문보건 간호사가 환자를 찾아가 보건기관 의사와 화상으로 연결해 환자를 돌보는 사업.

여성의 의대 진출이 늘고 지역에서 3년간 일하는 공보의 근무를 기피하는 젊은 의대생들 경향 등으로 공보의가 없는 보건진소가 전남도(43곳)에 비해 크게 늘어난 점이 한몫을 했다.

의사 부족으로 공보의가 지역을 순회하거나 보건진소가 격일로 문 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지속·주거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처방이 가능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나선 것이다.



전남도 보건복지국 관계자와 최미숙(민주·신안 2·오른쪽 두번째) 전남도의원이 10일 신안군 보건소를 방문,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 진료 서비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취약지 근무를 꺼려 의료진 구하기가 쉽지 않은 탓에 전남지역 31개 취약지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상태에 대한 자문과 진료 협진을 위해 전남 대병원, 목포한국병원, 순천성기톨릭병원 응급실과 실시간 연결하는 '원격거점병원 응급실-취약지 응급실 간 원격 협진'도 진행 중이다.

전남도가 22개 시·군 보건소를 통해 만성질환 위험군 환자 2242명에게 제공하고 있는 '휴대전

화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전남도는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 참여자의 생활행태를 모니터링하고, 생활 습관 개선,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령화와 의료진 부족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의료·돌봄 수요를 디지털 기술 기반의 의료 서비스 혁신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세계 최대 가전·IT CES 전시회

전남도, 28일까지 참가기업 모집

전남도는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CES)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전남에 본사나 공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중 전자제품 및 콘텐츠를 생산·유통하거나 상용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다. 참가 분야는 에너지, 모빌리티, 정보통신기술 및 콘텐츠, 디지털 헬스, 스마트팜 등이다.

선정되면 제품 전시와 전시관 구축, 해외 바이어 발굴, 홍보와 마케팅, 통역, 항공료 등을 지원 받고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 혁신상 상장을 돕기 위한 사전 교육·컨설팅도 이뤄진다.

희망 기업은 전남도수출정보망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참가기업들이 성공적으로 글로벌시장에 진출하도록 다양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열린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 전남관은 11개 기업이 참가해 총 1억 7800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과 4건의 투자협약 성과를 거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삼포지구 기업 유치 업무협약

삼포지구 공동 사업시행자인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중모)와 MC에너지주식회사(대표 정경오)는 지난 7일 영암군청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삼포지구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영암군(군수 우승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삼포지구는 영암 삼호읍 삼포리 일원 423만㎡ 부지에 총사업비 5395억원 규모로 1단계 사업으로 건립된 국제자동차경주장을 비롯해 오는 2028년까지 관광·레저 및 산업 융복합 미래첨단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등은 이날 영암군과 공동으로 삼포지구 투자 유망기업 발굴 및 유치, 자급자족형 복합도시 건설의 협력기반 및 행정지원 체계 구축 등 삼포지구 활성화를 통해 '민·관·공'이 함께 힘

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전기자동차 제조사를 비롯해 호텔 및 복합리조트, 리버파크 조성 등과 관련한 국내·외 기업 및 기관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올 하반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낼 목표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삼포지구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올 하반기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착수, 내년 하반기 완료한 후 2단계 조성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장중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답보상태에 있는 삼포지구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영암군과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기업유치 및 세계적인 관광레저기업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